

## 문화예술 도시의 조건

박성혜\*

메리 매콜리프(2011), 『벨 에포크, 아름다운 시대 1871-1990』(서울: 현암사, 2020).  
\_\_\_\_\_ (2014), 『새로운 세기의 예술가들 1900-1918』(서울: 현암사, 2020).  
\_\_\_\_\_ (2016), 『파리는 언제나 축제 1918-1929』(서울: 현암사, 2020).  
\_\_\_\_\_ (2018), 『벼랑 끝의 파리 1929-1940』(서울: 현암사, 2021).

문제) 다음 중 세계 최고의 문화예술 도시로 상징되는 곳은 어디인가?

- ① 파리    ② 북경    ③ 워싱턴    ④ 서울

정답은 맞춘다면 애국적 관점에서 ④번 서울이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①번 파리로 답할 것이다. 문제의 보기로 명시된 대도시들이 속한 중국과 미국, 그리고 대한민국 역시 자국의 수도에 어울리는 문화예술의 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매년 상상을 초월하는 문화예술 관련 예산을 편성하면서 운영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파리는 세계 최고의 문화예술 도시라는 명예를 언제부터 얻게 되었을까? 그리고 프랑스는 그러한 명성을 얻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한 면면을 살펴볼 수 있는 출판물로 메리 매콜리프의 4부작을 참고하면 어떨까 싶다. 이 책은 1871년부터 1940년까지 약 70년 동안 파리에서 벌어지는 주요 정치적 변화, 사건들, 그리고 파리에 모여 자신의 예술적 활동을 펼친 수많은 예술가들의 작업들을 묘사하고 있다. 언급되는 인사들의 분야를 살펴보면 정치가, 문인, 화가, 건축가, 조각가, 배우, 음악가, 무용가, 과학자 등 수 많은 인사들이 등장한다. 하지만 이 책의 미덕은 왜 파리가 예술의 중심이 되었으며 여러 예술가들의 다양한 활동과 상호 관계가 소상하게 서술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차원에서 특정한 장르나 분야만의 독자적 발전과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그리고 문화예술을 꽃 피우려면 어떠한 조건과 환경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하는지를 관찰할 수 있다. 이 책에서 언급되는 특정한 시기의 파리가 처한 정치적 상황 또한 문화예술 발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교류하는지를 밝히고 있다. 그리하여 파리의 진정한 황금기인 아름다운 시절 ‘벨 에포크(Belle Epoque)’가 가능했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그리하여 특정한 인물, 분야, 사건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와 상황을 배치하여 과거의 일정한 시기의 파리라는 특정한

\*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강사, gissell@naver.com

공간에서 보다 입체적으로 접근하게 한다. 그렇다면 그 옛날, 파리는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근대를 맞이했기에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파리가 되었을까?

## 정치와 예술의 관계

이 책의 출발은 파리 코뮌<sup>1)</sup>으로부터 출발한다. 외형적으로는 미완의 혁명이고 엄청난 희생과 혼란으로 끝을 맞이한 시민 중심 저항 운동의 마지막 부분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 정부군의 투입, 시민들의 항거와 투옥, 그리고 학살에 가까운 무자비한 처형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종결되었지만 이후 프랑스 정부는 시민들의 정치적 참여의 기회가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 인물이 조루즈 크레망소(Georges klemāso)<sup>2)</sup>다. 그는 후에 수상이 되는데, 노동자와 시민들을 대변하면서 아울러 파리 프랑스 정치의 공화정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정치적 변화는 파리의 활력을 주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 그중 가장 상징적 사건이 드레뤼스 사건<sup>3)</sup>이다. 프랑스 극우파의 군국주의, 반유대주의, 강박적인 애국주의에 반대하는 좌파들과의 극명한 대립으로 프랑스가 둘로 나누어져 유죄와 무죄를 주장한다. 이 와중에 에밀 졸라(Emile Zola)<sup>4)</sup>가 크레망소가 편집인으로 있던 ‘로로르’에 드레뤼스의 무죄를 주장하며 당시 수상에게 보낸 공개서한 <나는 고발한다>(1898년 1월 13일자)라는 글은 일대 사건이었다. 프랑스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문호가 보여준 결단과 군부에 대한 비판, 그리고 불의에 항거하는 예술인의 모습을 보여준 셈이다.

정치적 자율성과 민주주의는 문화예술 발전에 필연이다. 당시 프랑스는 나폴레옹이 이룩한 제국이 무너지고 혼란스러운 사회였지만 정치적 다양성이 공존하고 저마다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또한 다양한 계층이 정치적 참여하며 이방인에 대한 개방적 사회 분위기는 파리로 능력과 개성을 가진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자양분이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국적과 신분을 초월한 야심찬 예술가들의 입성이 본격화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글의 초입에 제기했던 문제에서 중국의 일당 체제와 검열, 그리고 정치적 제한을 두고 있는 북경이 오늘날 파리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조금은 설명이 된다. 예술의 발전에 민주주의는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다,

- 1) 1871년 3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72일간 파리에서 민중 및 노동자들에 의해 수립된 정권. 파리 코뮌은 자연발생적인 민중행동을 발단으로 성립되었다. 프랑스 곳곳에서 민중들이 베르사유 정부에 저항했으나 결론적으로 모두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5월 21일 정부군이 파리 시내로 진입하였고, 시민들은 모두 무기를 들고 바리케이드 앞으로 나아가 대항했으나 역부족이었다. 정부군은 이후 일주일 동안 잔학한 학살극을 연출하면서 파리 코뮌을 파괴했다.
- 2) Georges klemāso(1841-1929) 의사이지만 열렬한 공화주의자이며 정치가 활동으로 1906년 수상으로 선출된다. 노동자와 시민들의 정치참여에 적극적이었으며 보수파들과 대립적 입장이었지만 위기에 처한 프랑스를 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로 이끈다. 에밀 졸라와 교분이 깊으며 이외에도 많은 예술가들과의 친분으로 파리의 문예부흥에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 3) 1894년 10월 참모본부에 근무하던 포병대위 A.드레뤼스가 독일대사관에 군사정보를 팔았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비공개 군법회의에 의해 중신유형의 판결을 받았다. 파리의 독일대사관에서 몰래 빼내온 정보 서류의 필적이 드레뤼스의 필적과 비슷하다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증거가 없었으나 그가 유대인이라는 점이 혐의를 짙게 하였던 것이다. 그 후 군부에서는 진범이 드레뤼스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는 확증을 얻었는데도 군 수뇌부는 진상 발표를 거부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하였다. 그러나 재판결과가 발표된 직후 소설가인 에밀 졸라가 공개한 ‘나는 고발한다(J'Accuse)’라는 제목의 논설로 사건은 재연되었고 프랑스 전체가 ‘정의·진실·인권옹호’를 부르짖는 드레뤼스파 또는 재심파(再審派)와 ‘군의 명예와 국가 질서’를 내세우는 반(反)드레뤼스파 또는 반재심파로 분열되었다.
- 4) Emile Zola(1840-1902) 프랑스 소설가, 대표작으로 <목로주점> 등이 있다.

## 여성예술가들을 조명하다

이 책의 또 다른 특징은 이 시기에 활동한 여성 예술가들에 대한 조망이다. 다른 예술 전문서들이 남성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 같은 공간과 시간에 공존했던 여성 예술가들의 관한 언급이 전무한데, 저자는 이러한 누락들을 수정하고 새로운 시각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 시작점에는 사라 베르나르(Sarah Bernhardt)<sup>5)</sup>가 있다. 연극배우인 그녀가 어떻게 독립된 예술인으로 거듭 날수 있는지를 전 생애에 걸쳐 조망한다. 이 책에서는 시각예술에서 현대미술의 시작을 알렸다고 평가하는 마네나 20세기 미술의 진정한 왕으로 묘사하고 있는 피카소만큼 큰 비중을 둔 서술이다. 아울러 그녀가 주도했던 연극의 파격성, 예를 들어 그녀의 명성의 기반이 된 남자로 분해 연기한 <햄릿>이 얼마나 충격적 무대였는지를 소개한다. 아울러 그녀가 선택한 것들-자신의 이름을 딴 독립적인 개인 극장 설립, 자신의 이미지 메이킹과 선전 효과를 본 알폰스 무하(Alphonse Mucha)<sup>6)</sup>의 포스터 등-이 가지는 예술적 의미와 이 탁월한 여성의 능력을 조망하고 있다.

이외에도 20세기의 새로운 여성성을 제시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로 코코 샤넬(Coco Chanel)<sup>7)</sup>이다. 독립적이고 활동적인 새로운 패션을 제안하면서 새로운 여성성을 선도한다. 샤넬이 동시대성을 선도하며 혁신적으로 제안한 여성복은 단순한 패션 산업에만 머무는 것보다는 다른 예술가들과의 교류와 활동, 시대를 읽고 여성의 의류를 넘어 삶의 변화를 시도하는 그녀의 모험과 작업을 소개한다. 이외에도 과학자 마리 퀴리(Marie Curie)<sup>8)</sup>의 조망과 거트루드 스타인(Gertrude Stein)<sup>9)</sup>과 같은 여성작가의 활동과 그 보다 더 유명한 예술 후원자 겸 수집가로서 당시 파리에서 방황하고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야수파와 입체주의 화가들을 발견한 그녀의 안목과 영향력에 주목한다. 지금은 고유명사가 된 '잃어버린 세대'로 총칭되던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등장한 회의적이고도 환멸적 태도가 강했던 당시의 젊은 지식인과 예술가의 가치를 일찍이 알아본 헤안의 여성이었다. 저자의 이러한 주목을 통해 새로운 예술의 증장에 필요한 덕목과 후원, 안목, 비평의 역할과도 같은 문화예술에 있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새로운 인력들과 역할이 강조되기도 한다.

여성의 시대적 아이콘으로 부각은 과거에도 존재했지만 현대적 여성성, 새로운 여성으로 부각되면서 당시의 여성의 인식과 태도에 큰 변화를 선도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 책에서 주목하는 3권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여성으로 일명 '키키'로 통했던 엘리스 프랭(Alice Prin)<sup>10)</sup>이다. 일명 '몽파르나스의 여왕'이었던 그녀가 많은 예술가들에게 준 영감과 모델로서의 그녀의 행적, 그리고 만 레이(Man Ray)의 영화 <기계발레>에 등장한 배경과 친구들의 이야기가 소개된다. 이외에도 4권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시몬 드 보부아르(Simone de Beauvoir)가 매우 비중있게 다루어진다. 그녀의 저서 <제2의 성>은 현대 페미니

5) Sarah Bernhardt(1844-1923) 프랑스 여성 연극배우. 파리에서 태어나 극단을 따라 전국을 방랑하다가 1869년에 <행인 Le Passant>을 주연하여 주목을 끌었다. 이어 여러 작품에서 주연하여 명성을 떨쳤고 세계 순회 공연을 가졌다. 이후 1899년 <사라 베르나르 극장>을 창립했고, 제1차 세계대전 때 오른쪽 다리를 끊어 불구가 되었으나 실망하지 않고 계속 무대에 선 불굴의 여인이었다.

6) Alphonse Mucha(1860-1939), 체코 출신 화가. 르 누보 양식의 대표작가로 성격이 강직적이고 장식적인 문양과 풍요로운 색감, 젊고 매혹적인 여성에 대한 묘사는 아르 누보의 정수로 평가된다.

7) Coco Chanel(1883-1971), 프랑스 패션 디자이너.

8) Marie Curie(1867-1934), 라듐을 발견한 폴란드 태생의 과학자.

9) Gertrude Stein (1874-1946) 미국 출신의 소설가, 비평가, 미술애호가. 1900년경 오빠 레오와 파리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피카소, 브라크 등 많은 화가와 접촉하면서 후원하고 예술운동을 옹호하였다.

10) Alice Prin(1901-1953), 프랑스 출신의 모델, 문학 뮤즈, 나이트클럽 가수, 여배우, 화가로 활동.

즘에 끼친 영향을 고려했을 때, 저자의 의도와 여성 예술가들에 대한 견해가 적절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다. 이 책에서 여성은 지금까지 단순히 남성의 주변인, 보조자, 심지어 예술적 역량과 천재적 재능이 있어도 역량을 펼칠 수 없었던 이름 없는 그녀들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찾는 여성들의 활동을 독립적으로 조명한다는 점이다.

## 무용의 시대

이 책의 미덕은 무용사에 등장하는 로이 플러, 이사도라 던컨이나 니진스키와 발레루스와 관련된 무용가들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의 세세한 사생활부터 예술적 활동, 스캔들, 예술적 의미까지 서술하는데, 단순한 연대기적 서술보다는 같은 시대에 활동한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과 어떻게 조우하고 관계를 맺고 작업을 했는지가 서술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기존 무용사나 단순한 인물의 전기와는 명확하게 다른 부분이다. 가령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에서 로이 플러가 라둠과 형광 효과로 만국박람회에서 거둔 성공, 마리 퀴리와 의 교류, 이사도라 던컨과의 교차점이 된 박람회로 이후 그녀와의 시작된 인연 등이 언급된다.

이 책의 특징 중 하나는 문화예술에만 국한되지 않고 파리를 변모 시키는 전반적 사건을 함께 다룬다. 앞서 언급했던 정치적 상황도 포함되지만 과학과 기술도 포함된다. 더불어 대중 예술 분야도 포함되는데, 그중에서도 무용사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는 조세핀 베이컨(Josephine Baker)<sup>11)</sup>가 등장한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인 그녀가 파리에 등장하면서 재즈와 함께 파리 시민들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고 간다. 무용수이면서 가수이고, 코메디언이기도 했던 그녀를 조망하는 부분은 이 책이 단순한 한 분야만을 조망하지 않고 다양한 인사들을 다룬다는 점에서 얻은 작은 소득이다. 아울러 다른 문화에 대한 파리 시민들의 열린 시각과 어떤 문화가 파리라는 용광로 속에서 새롭게 탄생되는지를 다층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시각을 선사한다. 과연 문화예술의 도시라는 명성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책은 너무나도 많은 인명과 사건들이 언급되므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연대별로 서술된다. 그렇다고 켈런더처럼 노골적으로 명시는 하지 않지만 4권, 2천 200쪽이 훨씬 넘는 방대한 분량을 나름대로 혼선 없이 진행하려면 그래도 시간대별로 나열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 사료되었나보다. 월별 켈런더를 제시하는 기계적 전개는 피하고 있지만 그래도 시간의 흐름을 유지하면서 같은 공간에서 발생한 다양한 일들을 입체적으로 서술한다. 따라서 1권부터 책을 들고 읽기 시작하면 마치 같은 시간대의 파리로 초대 받아 파리의 신문과 다양한 소식지들을 접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질지도 모른다. 150년 전 파리를 조우하며 예술의 도시 파리가 어떻게 예술의 도시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천재가 불현 듯 나타나 전설이 되었으며 2차 세계대전 직전까지 현대예술을 이끌었으며 문화예술의 도시로 거듭났는지를 목도할 수 있게 된다. 세계 최고의 문화예술의 도시는 시간, 환경, 사람들이 모여 그렇게 만들어 진다.

11) Josephine Baker(1909-1975), 미국 출생 프랑스의 무용가, 가수, 코메디언이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프랑스 레지스탕스 활동으로 훈장도 수여받았으며 후에 인권운동가 활동가로도 하였다.